

창조도시의 지역적 변용: 제주 세계 평화의 섬과 평화 산업 사례*

권 상 철**

Creative City in Peripheral Regional Context: Jeju World Peace Island and Peace Industry*

Sangcheol Kwon**

요약: 창조도시의 세계의 많은 도시에서 후기산업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문화·예술 도시, 창조 인력 중심으로 전개되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환경 악화 등의 위기 상황 대처에는 한계를 보인다. 이 글은 창조도시를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창조적인 사고와 노력으로 확대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를 통한 현재의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의 가치까지 내포한 평화 도시를 한 변용으로 제안하며, 제주 세계 평화의 섬을 사례로 지방의 창조도시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주에는 현재 유명 관광지로 변모하였으나, 과거에는 척박한 환경의 변방 섬으로 일제강점기 군사 보루였으며, 4·3사건의 고난도 겪었다. 최근에는 독특하고 잘 보전된 환경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인문, 자연적 특성은 세계 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를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간의 평화 추구와 이를 관광을 통해 확산시키며 지역 산업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제주의 평화의 섬 추구는 평화 관광을 통해 인류 보편적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동시에 평화 산업을 통해 지역 변형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 창조도시의 한 전략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주요어: 창조도시, 평화 도시, 제주 세계 평화의 섬, 평화 관광, 평화 산업.

Abstract: Creative city has become a new urban development paradigm pursued by numerous local governments in post-industrial era wherein culture, art and the creative class centered strategies reveal limits in dealing with the problems of deepening socioeconomic polarization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This paper considers creative city not as a fixed norm or form but as a process divergent to restore regional competence, and suggests a peace city adding peace to regional development for harmonious and sustainable future. Jeju is the famous tourism destination while the peripheral island has harsh environment, was once being the strategic military bastion during the Japanese rule, and suffered the victims of April 3 incident. In 2005, Korean government declared Jeju, Island of World Peace based on the geopolitical location and resolution of the past sufferings. Recently the unique, conserved nature became the UNESCO designated World Natural Heritage site. The peace island and natural heritage provide a foundation for peace tourism learning peace between humans and human-nature interactions, and the peace tourism would be further extended to peace industry. Jeju Island of World Peace could be a context-specific creativity of promoting peace as well as increasing regional competitiveness.

Key Words: creative city, peace city, Jeju Island of World Peace, peace tourism, peace industry.

1. 서론

창조도시(creative city)는 도시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발전의 대안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침체하는

대도시의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등장하였는데, 학계가 아닌 정치권에서 정책의 실천적 도구로 추진되며 세계 여러 도시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각축을 벌이고 있다(이희연, 2008; 이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 교수(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kwonsc@jejunu.ac.kr)

용숙 · 최정인, 2012; 정재희, 2009; 엄상근, 2012; Landry, 2012; Grodach, 2011). 서구적 출발의 창조도시는 예술 · 문화의 잠재력과 창조 계급이 강조되고, 이는 더욱 구체화된 창조 지수를 도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산업화되었던 도시 중심에서 점차 소규모 도시, 지역으로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Luckman *et al.*, 2009; Lewis and Donald, 2010; 엄상근, 2012; 정재희, 2009).

그러나 지방 정부들이 창조도시에 대한 아이디어나 정책을 무분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거나 지나치게 협소하게 받아들이며 경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된다(이용숙 · 최정인, 2012; 이철호, 2011; 정성훈, 2012). 가장 포괄적 비판은 다양한 지역 상황에도 불구하고, 규범화되고 규격화된 도시 정책이 양산되고 있으며, 특히 계량화된 창조성 지수가 창조지수와 경제발전 사이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다른 지역의 맥락에 대한 고려없이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같은 척도에서의 장소 비교는 신자유주의적 경쟁으로 이어져, 창조도시는 쇠락하는 경제의 경쟁력 회복에 치중하며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도시 및 지역마다 다른 역사적 경로에 기초한 창조성이 형성되어야 함에도 유럽과 미국의 도시 성장 단계와 산업 구조에 기초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창조도시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전략이라면 근대의 도시발전이 지나치게 경제성장 일변도의 논리로 인간적, 자연적 정합성을 잃어버린 상황에 도달한 노정과 차이가 없어, 경제위기와 더불어 다가온 환경위기의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임현진, 2011).

창조도시의 목표를 인프라, 인적자원 중심을 넘어 창조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인식하고, 이로부터 문제해결 방식과 정책을 구사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한다면(박은실, 2008; 박규택 · 이상봉, 2013), 창조적 대안은 지역별 역사적 맥락에 기초한 그러면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크고 넓은 미래지향적 개념, 가치를 담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논의되는 창조도시를 규격화된 형태에서 창조적 사고와 방향을 포괄하는 다양한 가능성의 '창조적 도시'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으며, 최근 도시, 지역의 경제적 경쟁력 상실 외 환경악화, 사회적 분열 등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

으로 언급되는 평화 도시를 지역 산업 육성의 평화 산업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평화 도시는 아직 정립된 개념이 없지만, 적게는 분쟁을 경험한 도시가 평화를 추구하는 방향, 평화적 모임의 장소, 더 나아가서는 자치적 능력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는 논의가 이루어지는데(이기호, 2012; 가즈미, 2005), 인간간의 평화에 더하여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인간과 자연간의 평화, 특히 자원이거나 규모에서 불리한 지역에서 생존을 위해 부족함을 이겨내기 위해 취해 왔던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창의성 발휘로 간주하는 포괄적 평화 도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간간 그리고 자연과의 평화 공존 구상은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지방에서 다양한 지역 특성에 기초해 평화 확산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창조도시 논의를 도시 재생, 문화에 한정된 입장을 넘어, 다양한 지역 맥락에서 취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발전 전략 중 하나로 평화 도시를 논의하며, 제2 세계 평화의 섬을 사례로 평화 관광을 통해 평화 확산과 평화 산업 육성으로 지역 번영을 도모하는 지방 창조도시의 한 가능성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창조도시, 창조적 도시, 그리고 평화 도시

1) 창조도시와 창조적 도시

창조도시란 도시의 생존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유럽과 미국 등에서 창조성에 기반한 산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등장하였다(Landry, 2012; 이희연, 2008). 창조도시는 탈산업화가 진행되며 대도시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도구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제 유럽의 여러 도시들이 예술 · 문화의 잠재력을 성공적으로 도시 재생으로 연계시키며, 창조적인 잠재 능력의 구체적인 요건으로 창조적 기반 시설, 풍토, 개방성과 상상력을 증시한다. 창조도시의 핵심은 창조적 인재의 재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창조 환경의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Landry, 2012; 이용숙 · 최정인, 2012). 미국에서의 창조도시 관심은 창조계급에 무게를 두어 이들을 지역으로 유인해 착근시키는 것이 창조경제의 성패

를 결정하는 것으로 다루며, 창조적 계층이 모이는 도시의 특성으로 기술, 인재, 관용을 제시하고, 창조적 인력이 원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강조한다(Cunningham, 2012; Grodach, 2011). 미국 내 여러 도시들은 창조성 지수로 실증적으로 분류되어 제시되는데, 창조성 지수는 기술지수로 혁신과 하이테크 산업 비중, 인재는 창조적인 직업과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율, 그리고 관용지수로 문화·예술 분야 종사 인구, 동성애자, 외국인 비율 등을 고려한다(이원호 등 역, 2008).

창조도시 논의와 정책에 더하여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는 창조 산업의 발전을 통해 공공·민간은 물론 시민사회를 견인하고자 하는데, 지역 차원에서 문화 산업의 창조적, 사회적, 경제적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도시 간 비경쟁적 협력, 지식 및 경험 공유,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장려를 강조한다(정갑영, 2008; 엄상근, 2012). 현재 34개 도시가 문학, 영화, 음악, 민속 예술,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식의 7개 분야에 지정되어 있는데, 창조도시 지정 기준은 신청도시의 규모와 무관하며, 내재적 창조성의 역사적 발전 정도 및 현재 이 창조성이 도시 내에서 구현되어 있는 정도가 가입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최근 지방 정부에서 창조도시를 일종의 슬로건처럼 사용하며 주된 관심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지표들에 따라 도시 경관, 디자인 등의 개발을 강조하며(엄상근, 2012; 정재희, 2009),¹⁾ 창조 역량의 강화보다는 경쟁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창조도시에는 매우 다양한 면모를 포괄하고 있음에도, 정책적 도구로 특히 예술·문화, 창조 인력 등의 지표들로 규격화된 규범적인 양상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중앙, 지방정부들에게 더욱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데, 소규모 도시나 낙후된 원격지에서의 적용(Lewis and Donald, 2010; Luckman *et al.*, 2009), 싱가포르의 창조산업 정책을 국가 차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술·문화부문, 디자인, 미디어 부문의 집중적 육성(이용숙·최정인, 2012), 중국의 정부 행정력이나 자본의 마케팅에 의해 주도되는 산업클러스터 조성(한지은, 2012), 국내에서는 창조도시 정책과 계획이 대도시 다양한 분야, 남해안 지역, 제주도 등에서의 추진 등을 들 수 있다(박은실, 2008; 정재희, 2009; 엄상근, 2012).

창조도시에는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배태된 것으로 비판을 받으며(이철호, 2011; 정성훈, 2012), 창조도시 개념내에서는 세계적 정책 규범과 복잡한 지역 상황과의 불일치, 낙후 도시, 소규모 도시 등의 지역 상황, 장소성, 생태성, 주택 가격, 통근 거리의 지속가능성 지표 등의 다양한 관심을 제한하고(박규택·이상봉, 2013; Lukeman *et al.*, 2009; Lewis and Donald, 2010; Vanolo, 2012), 더 나아가 도시 변화에서 바람직한 도시 개념으로 사회경제 모델 도시, 성장편의 공유형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 등(한상진, 2008; 최병두, 2011; 김용창, 2011)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창조도시 논의는 세계화가 진행되며 선진국이 기존 산업 시대의 도시 성장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며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려는 노력으로 등장했으나, 창조 계급 유입과 문화 도시 전략을 넘는 보다 근본적인 지역 상황을 고려한 대안 모색에는 창의성이 발휘되지 않는 모습이다. 실제 Landry도 '세계를 위한 창조 도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도시를 위한 창조성'을 추구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은 한 도시가 특정한 가치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부각시킨다고 언급한다(메타기획컨설팅 역, 2009, 465). 창조성이 전체의 목표와 결합하면 특별한 힘과 반향을 일으킨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측면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형평성을 증대시키며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 정립, 예를 들어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 사회, 환경 의제의 결합 등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다(메타기획컨설팅 역, 2009).

세계화 시대는 고용없는 성장, 기업가주의로의 변화, 도시와 지방 양극화의 경제위기와 더불어 근대화의 부작용으로 사회계층간의 갈등 심화, 환경 악화 등 복합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이 언급된다(류연택, 2012; 임현진, 2011; 이기호, 2012).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 변화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창조도시에는 경제성장 일변도로 경쟁을 부추기며 더욱 사회경제와 환경 위기를 심화시키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위기에 대한 협소한 안목이 협소한 대책 수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창조도시 정책은 세계적으로 확대되며 지역의 특수성이나 정체성의 복잡함을 간과하며 진행되기에, 규범적,

결정적이지 아닌 다양한 개념, 전략을 논의하며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써의 창조적 도시로의 사고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대적 도시, 지역 발전 모델이 인간-자연관계, 인간-인간관계의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에 비추어(김용창, 2011), 현재의 복합 위기에 대한 지역 창조적 대안은 관용, 포용, 승화의 가치를 지닌 인류 보편적 평화에 대한 높아지는 관심(이기호, 2012; Megoran, 2011; McManus *et al.*, 2010; Kelly, 2006)을 수용하는 방향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2) 평화, 평화 도시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의 소극적 관점에서 이를 넘어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고 정의가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는 진정한 평화의 적극적 관점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여러 지역간 사회구성원들의 인적, 물적, 지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평화를 창출하고 확산하고 건설하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양길현, 2007). 이러한 면에서 평화 도시는 단순히 군사기지를 반대하거나 핵무기 폐지 및 반입 등을 반대하는 운동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실제로 지속 가능한 평화가 생성,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일상적 생활공간 차원에서의 관심으로는 경제를 포함하여 자원과 환경의 복합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지역의 자치 능력 그리고 보다 포괄적으로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호혜의 원칙을 강조하는 포괄적 의미로(이기호, 2012; 가즈미, 2005),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 도시는 실제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표방하는 경우로 나타난다. 유네스코의 경우 열악한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도시, 진정으로 도시의 화합을 추구하는데 성공한 모범 도시를 평화 도시로 선정하는데, 도시 폭력의 근절, 실업자나 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모범적인 환경 운동, 문화 진흥, 시민 교육 등의 기준을 충족한 도시들의 신청을 받아 선정해 왔다(제주발전연구원, 2008). 1996년부터 2002년 사이 전체 38개 도시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아프리카, 아시아 및 태평양, 아랍, 유럽 지역에 걸쳐 평화 도시로 선정되었다.²⁾ 사례를 보면 네덜란

드의 데프트(Delft)시는 환경과 문화 2개 분야에서 보스니아에 대한 성공적인 국제적 지원사업 추진, 헝가리의 팩스(Pecs)시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통해서 이질적 인종집단의 분리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고 다문화적 예술도시 건설, 이집트의 샴엘-셰이크(Sharm el-Sheike)시는 황무지를 이용하여 고도의 문화시설을 유지하고 모범적인 환경관리를 행하는 국제적 관광도시 건설, 콩고의 롬바시(Lumbashi)시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문맹퇴치, 성병과 에이즈 예방,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초중등교육 정상화, 리투아니아의 빌뉴스(Vilnius)시는 1994년에 구시가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후, 지역주민 전체가 동참하여 도시구획 정리 및 미화사업, 문화재복원 사업, 범죄 퇴치운동 등을 전개하여 역동적인 문화도시로 새롭게 태어나 다른 지역의 모델이 되는 경위로 선정되었다(제주발전연구원, 2008).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평화 도시를 표방하는 경우는 대다수 과거 전쟁의 경험 또는 평화와 관련된 국제회의 및 기구의 존치 등 역사적 사실을 간직하였거나 평화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의지와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사례로 독일의 오스나브뤼크(Osnabrueck)시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30년 전쟁을 종식시킨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과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의 기억 두 가지의 역사적 배경으로 평화도시를 선언하였다(주성산·천준봉, 2004). 공식적으로는 2001년 관용의 문화 조성을 최대의 정책 목표로 평화 도시를 선언하였고, 각종 시민, 종교, 문화, 교육 단체 등을 네트워크화하고 이들의 평화 사업을 다양한 이민자와 난민들을 포용하며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의 제네바는 200여개의 유엔 산하 특별전문기구와 각종 NGO들이 집결해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1864년 적십자 국제위원회가 설립되고, 국제연맹 본부, 유엔 유럽 사무소가 설치되며 세계 인권과 평화를 구현하는 국제기구의 본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소진광, 2008). 제네바에는 해마다 수천 개의 크고 작은 국제회의가 열리고 회의참석자 수 또한 수만 명에 달해 부가적인 세계 관광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다.

히로시마는 대외적으로 1954년 10월 평화 도시를 선언하고, 1945년 8월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나타난 참상을 평화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평화 관련 문화시민강좌, 세계 대학생 평화세미나, 학생 대

상 평화여름학교 및 평화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1996년에는 원폭독을 평화 기념비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하고, 세계평화도시연대를 조직해 1997년 현재 99개국 421개 자치체가 가입시키는 등 다양한 평화 사업을 추진하고, 피해를 승화한 지역의 전지구 관광 프로그램³⁾을 운영하는 등 평화 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제주발전연구원, 2008; 가즈미, 2005).

평화 도시는 현실적으로는 평화 개념에 기초해 지역별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승화시키거나 최근의 다문화, 환경 악화 등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시도들로, 방문객 유치와 지역간 상호교류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며 평화 교육을 통해 평화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화 도시의 성장은 현실적 동력이 필요한데,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평화 관광의 활성화를 통한 평화 산업의 육성이 그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⁴⁾ 평화 관광은 단순한 기존의 방문자 중심의 대량 관광을 넘어, 인간 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간 이해의 확장된 의미의 평화 프로그램의 관광이며, 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 활성화와 확산을 도모하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라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지방은 경쟁보다는 지리-역사적으로 독특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환경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과거의 역사를 평화 관광을 통해 승화하고 화합의 장소로 역할하며 외부인을 수용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이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지방의 창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평화 관광은 지방의 상황에서 지역 정체성에 기반해 경쟁력을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적 상황에 기초한 창의성의 개발과 실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제주의 세계 평화의 섬 선언은 관광을 통한 평화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시도로 참여와 포용성 그리고 평화의 확산을 포괄하는 방안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3. 창조적 도시로서의 제주 평화의 섬

창조적 도시는 창의성에 기초한 지역 경쟁력 확보의 창조도시에 더하여 다양한 지역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발전을 도모하는 경우를 포괄한다. 이는 주류적 대도시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방에서 지역성에 기초해 창의적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노력으로,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사례를 통해 지방 창조도시의 가능성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평화, 평화 관광

평화는 광범위하게 평화로운 관계를 의미한다고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이는 국가간뿐만 아니라 집단·개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의미할 수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타자, 다른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제주발전연구원, 2008; 양길현, 2007). 관광은 다른 지방이나 나라에 가서 그곳의 풍경, 풍습, 문물을 구경하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목적지에 대한 영향과 이해는 크게 강조되지 않았다. 그러나 근래 대량 관광의 대안으로 여러 형태의 관광이 강조되는데, 생태 관광, 책임 관광 등은 관광객들이 지역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즐거움을 얻고 지역 사회의 사람, 문화, 환경을 도와주는 형태가 언급된다(Megoran, 2011; Higgins-Desbiolles, 2003).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는 관광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친근해 지고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활동으로,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중재되지 않은 접촉을 통해, 평화와 우정, 세계의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져 결과적으로 국제간 협력 강화에 공헌하는 국제 이해와 평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D'Amore, 1988). 더 나아가 관광을 통한 국제 평화 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Peace through Tourism)는 다양한 활동 영역을 제시하는데, 국제적인 이해와 협력, 환경의 질 개선, 그리고 유산의 보존 등을 강조한다(Kelly, 2006). 즉, 관광은 역사의 화해, 지역 고유 문화의 이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도모해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공헌하는 활동으로, 관광은 기본적으로 평화 관광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 관광과 산업의 연계는 관광을 통해 방문 지역의 역사와 화해, 자연의 감상과 참여를 통해 표방하는 평화의 소중함에 대한 이해와 확산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방문객의 교환은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호적인 지역 방문과 지역 이해의 평화 관광은 지역 산업 발전에 중요한 평화 산업으로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평화 산업은 평화를 육성시키며 동시에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로 광범위하게 보고, 여기에 관광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관광을 통해 평화의 유지와 확산이 이루어져 지역과 세계의 번영에 공헌하게 된다.

창조도시가 산업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상으로 등장한 것처럼 관광 중심 지역도 기존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을 통한 위락, 휴양지 형태의 대량 관광은 그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로 환경 훼손을 유발하게 되면서 더욱 변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지역 특성이 배제된 위락적 성향의 관광, 스토리없는 형상에 기반한 관광은 더 이상 관광지나 대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대안은 문화관광, 생태관광 형태로 현재 다른 지역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제는 관광 수요가 관광을 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관광을 했느냐가 의미를 가지게 되며, 지역 특성을 보다 강조하며 경쟁적 우위를 만들어 내는 일이 관건이 된다.

대도시를 제외한 대다수의 지역은 주변으로 역할하며 산업화의 우위적 자원이나 입지를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지역이 수탈과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유한 전통과 자연 환경이 상대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 경제는 이러한 배경으로 관광에 의존하며 대다수 관광지로의 발전 경로를 밟게 된다. 관광은 다양한 사람들을 개방된 친화적 분위기로 모이게 하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과 자연을 이해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유도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지역의 역사문화와 자연에 기초한 인류의 보편적 평화의 가치를 더하는 평화 관광은 타지역 이해 도모와 자연친화적으로 이루어져 평화 교육이 되고 평화를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광이기에 평화 산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창조적 관광지로의 발전 방향은 지방에서 찾을 수 있는 평화 산업 육성 방안이 될 것이다.

제주는 1991년 한-소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한-미 정상회담 및 한-일 정상회담 개최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정상들이 제주를 방문하며, 지

정학적으로 제주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정착 논의의 장소로 그 가치가 부상하고, 제주의 도둑, 거지, 대문 없는 三無정신 전통을 계승하며 제주 4·3사건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부는 2005년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다(고성준·김부찬, 2005). 제주의 지정학적 인문 배경에 더하여 고립된 화산섬의 잘 보존된 자연환경과 생태계는 2002년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2007년 한라산과 성산일출봉과 용암동굴지역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그리고 2010년에는 한라산을 위시한 8곳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며, 제주는 자연 보전과 교육과 관광 등 환경에 대한 인식을 드높이는 장소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제주는 관광지로 인문과 자연에 기반한 평화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평화 산업을 연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적지라 하겠다. 제주는 '신혼여행의 섬'에서 '평화의 섬'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인간과 인간과 자연간 평화의 장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며 동시에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활용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2) 제주 세계 평화의 섬과 평화 산업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선언은 그 가치는 송고하나, 평화의 실천적 방안, 생태적 고려, 산업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변종현, 2012; 제주발전연구원, 2008). 제주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 대량 관광을 겨냥한 개발로 인해 근래 들어 대안적 관광 산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의 경우 제주 세계 평화의 섬과 세계 자연유산을 중심으로 대안적 평화 관광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평화 관광을 통해 제주를 평화 인식을 고양하는 장소로 부각시키며 평화의 확산과 평화 산업의 발전이 동시에 가능한 윈윈 상황으로의 가능성을 보인다.

세계 평화의 섬과 세계 자연유산의 두 주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간의 평화를 인식하고 배우는 기회로 발전시킬 수 있다. 첫째는 인간간의 화해의 평화로 제주의 삼무 전통, 공동 여장과 목장의 지속적인 운영, 고난기의 수난을 평화적으로 승화하려는 노력들을 지역사회의 이해를 통해 고려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과 자연간의 공존의 평화로 제주의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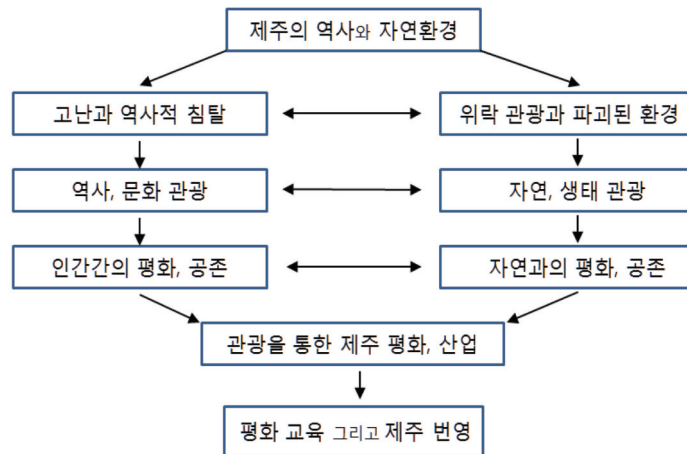


그림 1. 제주 평화 관광-산업의 두 주제

된 자연과 자연 체험에 기반한 생태관광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혜를 얻는 평화 의식과 교육 그리고 태도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제주의 지역 특성을 서로 연계되어 가장 잘 담아내고 있다. 따라서 제주는 관광을 통한 평화 산업의 최적지로, 전통과 역사적 고난 그리고 자연생태가 평화 교육과 제주 지역 번영을 도모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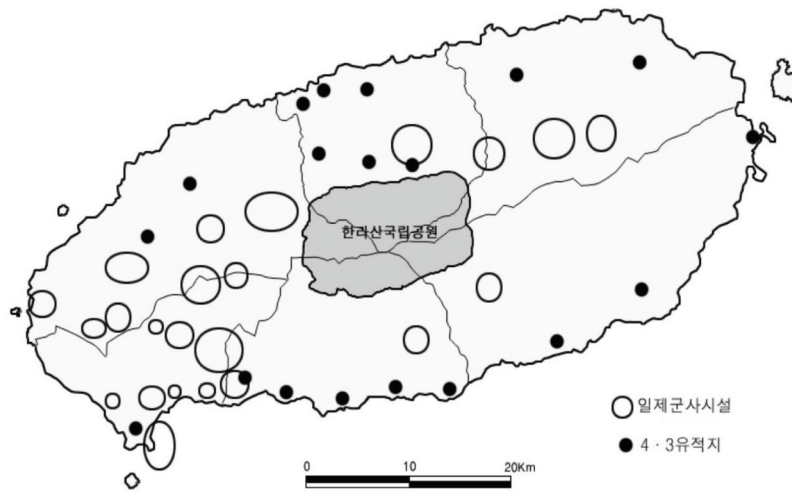
제주 평화 관광은 의미있고 책임있는 관광을 즐기며, 더불어 자연의 고귀함, 자연과의 공존의 평화 인식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제주는 평화의 섬이자, 이 평화를 관광을 통해 확산시키는 중심지로 역할하며, 평화 교육과 제주 지역의 번영을 동시에 도모하는 상승 방안이 될 것이다(그림 1).

제주 평화 관광-산업을 역사문화 관광과 자연생태 관광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보면, 역사문화 주제는 제주인의 삶이 자연에의 도전과 적응에서 생겨난 특성으로 상호 신뢰와 협력을 대변하는 三無와 마을 단위로 이용, 관리되는 해녀로 대표되는 공동어장에서 찾을 수 있다(이창기, 1992; 안미정, 2008). 제주의 삼무정신은 대문, 거지, 그리고 도둑이 없는 사회상으로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평화의 전통으로 고려될 수 있고, 현재에도 잘 운영되고 있는 공동어장은 개개인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누리면서도 공동체의 질서를 따르는 전통이며, 해녀들의 활동에서 성 평등주의 또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섬 지역의 한정된 자원과 거친 환경 속에서 배태된 제주 지역의 문화는 자원 고갈, 양극화 사회로 치닫는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이다.

제주의 고난으로 점철된 역사는 근대의 일제 강점기 군사 보루, 4·3사건의 피해, 그리고 최근의 해군 기지 건설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 본토를 수호하기 위한 7군데 방어진지 중 제주가 유일하게 본토 밖의 보루로 설정되어, 제주의 거의 대다수 지역에 군사시설이 설치되며, 당시 제주 인구의 약 30퍼센트에 해당하는 6~7만명의 일본군이 주둔하는 전선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4·3사건은 제주 전역에서 3만여 명의 인명 피해를 포함한 또 다른 희생의 장소로 만들었다. 이후 2003년 정부는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4·3평화공원 조성 등 화해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고난의 역사와 희생을 평화로 승화하려는 노력은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으로 이어지는데, 이와 동시에 정부는 국가안보와 대양해군의 필요 주장아래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제주의 역사와 문화는 독특한 경관의 ‘볼거리’ 관광을 넘어 ‘알거리’ 관광으로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여기에는 지속가능하고 형평적인 자원의 이용과 관리의 지혜가 배어 있는 삶을 현실에서 찾을 수 있으며, 고난의 역사를 평화로 승화하는 평화 관광은 보다 구체적인 동선을 만들어 평화 교육의 장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의 평화 유린에서 현재의 평화 추구로 방향을 정한다면, 일제 군사 시설과 4·3 유적지에서 4·3평화공원과 제주국제평화센터로 이어지는 구성이 가능한데, 대표적으로는 대정지역의 일제 알뜨르 비행장과 비행기 격납고, 송악산 해안 진



출처: 제주발전연구원, 2008, 106.

그림 2. 제주의 일제 강점기 군사시설, 4.3유적지 분포

지 동굴, 인근의 학살터, 잃어버린 마을에서 중문의 정상회담 장소와 평화센터 그리고 제주시 봉개의 4·3평화공원으로 이동하며 평화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우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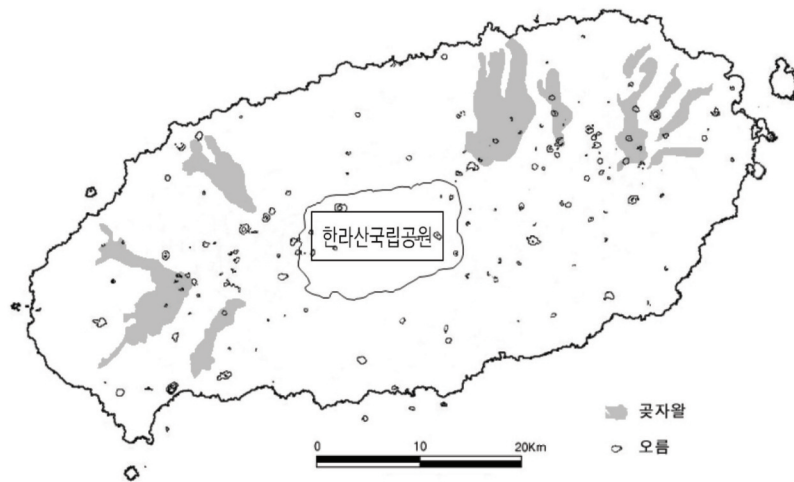
제주의 자연생태는 고립된 섬 지역의 고유한 생태계와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지형과 척박함이 독특함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은 생태와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전환기를 맞아 한라산의 생태계는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2007년에는 일부 화산지형을 더하며 세계자연유산으로, 그리고 2010년에는 한라산을 위시한 8곳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다. 이러한 지정은 우선 가치 있는 자연자원에 대한 보존을 강조하며, 동시에 이들의 관광자원화는 관리 방안에 기초하여 훼손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형태를 찾아야 할 것을 권고한다(Pedersen, 2002; Poyya, 2003).

제주의 세계 자연유산 지정은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그리고 거문오름 주변 용암동굴들로, 한라산의 경우 수직적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생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성산일출봉의 경우 수중분화식 화산폭발로 형성된 지형이 해안쪽에서 침식을 받아 절개면을 드러내 지형 형성 과정에 대한 교육장소로 적합하며, 용암동굴의 경우 좁은 지역에 다양한 형상과 더불어 석회동굴의 특성인 사주와 석순 등의 형상이 조개껍질이 용해되며 동굴로 배어들어 복합적인 모습을 보이는 특성 등이 강조된다. 특히 제주는 좁은 지역에 다

른 시기에 형성된 화산지형이 서로 연계된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지정 배경으로 언급한다(IUCN, 2007).

제주의 자연생태는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자연유산지역으로 관광의 측면에서는 생태관광, 책임있는 관광(responsible tourism)으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 교육의 장이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관광 동선을 제시해 본다면 환경 파괴적인 대규모 위락 관광단지에서 환경 친화적 생태관광으로 이어지는 구성으로, 예를 들어 중문단지와 골프장 등에서 세계 자연유산의 일부인 거문오름 트레킹, 한라산 탐방로 5곳, 또는 올레길로 이어질 수 있다. 제주의 오름과 꽃자왈은 또 다른 경관이자 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 생태지의 제주 방언으로, 오름은 주 화산인 한라산의 기생화산으로 제주 전역에 걸쳐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꽃자왈은 나무, 덩굴식물, 암석이 뒤섞인 생태계의 보고이자 빗물 침투지로 지하수가 함양되는 지역으로 중요하다(그림 3). 그러나 꽃자왈 지대는 개발이 어렵고 수분 침투가 빠른 불모지였으나 생태적 가치가 알려지기 전까지 골프장 건설에는 최적지로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오름 또한 대규모 개발의 대상이거나 걸림돌로 훼손되어 왔다. 세계 자연유산지역이나 오름, 꽃자왈의 제주 생태는 탐방을 통해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제주의 평화 관광은 대안 관광으로 언급되는 문화, 생태 관광을 포괄하며 인간과 자연과의 평화



출처: 제주발전연구원, 2008, 107.

그림 3. 제주도의 꽃자왈, 오름 분포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통해 평화를 신장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지역의 방문을 통해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자연 생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평화 추구로 연결되기에 평화 관광이라 부를 수 있으며, 제주의 입장에서는 관광을 신장함과 동시에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지킬 수 있으며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평화 추구의 가치와 행동을 지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 평화 관광은 역사문화 주제로 제주의 고난의 역사와 제한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며 생겨난 문화에 대한 이해, 자연생태 주제로 다양한 생태계의 보전과 지형 형성과정 그리고 인간의 삶의 관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들 둘이 서로 중첩, 연계되어 지역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 도모를 유도하는 시도로 제주를 평화 학습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 시도를 제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문화, 자연생태에 기초한 평화 관광-산업 모델은 제주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나, 대도시, 중심 지역이 아닌 주변, 변방 지역은 유사한 상황과 경험을 보일 것으로 큰 틀은 유사하지만 지역 특수적 상황을 고려하며 평화 추구와 동시에 지역 변형을 추구하는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 관광은 공급자 측의 입장만으로 성공을 거둘 수 없기에 ‘아는 만큼 보인다’를 강조하여 대량 관광이 아닌 선별된 관광 수요에서 시작하여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은 지역내 갈등의 승화, 대안적 관광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여 관광을 통해 평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평화 산업으로 이어지는 바람직한 평화 관광-산업 모델 정립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평화의 섬에 새로운 양립 또는 대립의 국면을 전개시키고 있다.

4) 제주 평화의 섬과 평화 운동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세계 평화의 섬을 지향하고 있다. 이들은 감귤을 위시한 농업과 관광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들로 국제자유도시의 경우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동북아시아 중심지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등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가의 권한을 이양받아 자치권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들은 세계화되어가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지방의 개방을 통해 지역과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로 시작되었다(양길현, 2008; 고성준·김부찬, 2005). 세계 평화의 섬은 제주도의 미래 가치를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지역 정체성과 4·3의 아픔을 뛰어 넘고, 청정한 삶의 터전을 유지하는 평화로운 제주를 건설하는 것으로, 제주도의 지식인 집단이 앞서서 평화의 섬 지정 방안을 제시했고, 정부에 제주 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요청하며 이

루어졌다(제주발전연구원, 2008).

제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과거 일제 강점기 군사작전 지역으로 고난을 넘어 세계 국가들간의 평화 협력을 위한 회의 장소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다시 해군기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제주는 일면 화해의 장이자 관광과 방문 교류를 통한 평화 증진을 추구하고 있는데, 동시에 태평양 시대의 해양 권익의 보호와 안정된 안보 환경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전략적 위치로 해군력 증강으로 힘의 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기지로 지정되며 두 얼굴을 지닌 모순된 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양길현, 2007).⁵⁾ 더불어 해군기지 건설에 동반되는 해안 생태 파괴의 또 다른 환경 위기를 발생시키며,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세계 자연유산의 지위에 상충되는 추가적인 모순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과 해군 기지 건설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한편 새로운 대결과 분쟁의 씨앗이 동북아시아의 한편에서 커져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듯, 평화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 추구하고 힘의 균형을 통한 평화 유지라는 관점의 혼재를 보여준다. 해군 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국방부는 안보와 경제 논리를 내세우며 도민을 설득하는 한편, 도민, 시민 사회단체, 종교계의 평화와 환경 파괴의 반대 운동은 지역 손익을 따지며 자신의 마을과 제주도를 지키는 입장을 넘어, 제주도를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바꾸려는 평화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조성윤, 2011; 고영철·최낙진, 2006). 제주의 평화의 섬을 향한 행로가 현실적으로 순탄하지만은 않음을 보여주지만, 지역 주민 뿐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들은 평화 추구의 공조속에 동질성을 확인하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간의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제주 평화의 섬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기울이는 노력은 현재의 평화 유지를 넘어 새로운 차원의 평화를 만들고, 확대시키며,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

4. 요약 및 결론

창조도시는 탈산업화 도시의 재생 전략으로 등장하여, 여러 도시, 지역에서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확

대 적용되고 있으나, 규범화된 틀과 창조계층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독특한 역사, 문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경제적 측면으로만 한정지어 도시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언급하는 한계를 보인다. 이 글은 창조 도시를 보다 광범위하게 지역별 다양성 그리고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발전 전략으로 창조 도시적 평화 도시를 제안하며, 제주 세계 평화의 섬을 사례로 고려해 보았다.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은 직접적으로는 제주에서 한-소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며 평화를 잉태할 수 있는 지정학적 특성에서 부각되었고, 여기에 섬 지역의 한정된 환경에 적응하며 삼무의 삶을 영위해온 평화 전통에 더하여 일제강점기 군사기지화, 4·3사건을 겪으며 치러진 희생을 평화로 승화시키려는 배경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 화산섬의 자연 환경은 세계생물권 보전지역, 자연유산지역으로 지정되며 자연 보전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장소로서의 중요성이 부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문, 자연적 특성은 평화의 실천과 생태적 고려, 산업과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선언을 관광에서 일고 있는 생태 관광, 관광의 질을 추구하는 욕구 등 새로운 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도의 자연 환경을 단순한 관광 대상으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한 이해를 고취하려는 알고자 하는 관광, 책임있는 관광을 평화 관광으로 수용하여 인간간 그리고 자연과 공존의 평화 교육의 장으로 평화의 확산 그리고 동시에 지역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평화 산업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 평화의 섬 사례는 지역의 독특한 역사-지리적 특성인 평화의 섬 이미지, 세계 자연유산 보전지역을 인간과 인간간 그리고 자연간 평화의 장으로서의 평화 관광을 통해 경제, 환경 위기를 극복하며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관광을 통한 평화 확산과 평화 산업 발전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이다. 제주 세계 평화의 섬은 평화 관광을 통한 교류와 평화 확산의 중심지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평화 교육의 장으로 역할하고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세계의 평화 유지에 기여하며 지역 번영으로 이어지고, 지속적으로 겪게 되는 변방 지역의 고난과 갈등은 일상의 현실에서 평화의 가치를 경험하고 배우며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 평화 관광은 화

합의 장소로 과거의 역사를 승화하고 자연을 보전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를 확산시켜 나가며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이는 다시 평화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지방의 창조적 발전 방안의 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방은 도시에 비해 우위적 산업이나 입지를 가지지 못하고 변방으로 고난의 역사와 개발·훼손되지 않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어, 대도시의 창조도시에서 보여지는 경쟁보다는 지리-역사적으로 독특한 문화역사 그리고 자연생태를 기초로 방문과 교류를 통한 평화 관광을 발전시키며, 이를 통해 평화의 확산과 더불어 평화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이 지역 발전을 위한 한 창조적 가능성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해 보았다.

註

- 1) 우리나라는 인천이 민속 예술, 서울이 디자인, 그리고 전주가 음식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 2) 유네스코는 평화 도시를 대륙별로 고르게 선정해 왔으며, 2002년 이후 예산 부족으로 선정을 중단한 상태이다(엄상근, 2012).
- 3) 장소마케팅, 관광 등 지역개발 측면에서는 부정적 장소자산을 이용한 관광 개발을 다크투어리즘으로 부르며 관심을 높이고 있다(류주현, 2008).
- 4) 창조도시와 연관되어 언급되는 문화도시 또한 지역 문화의 정체성 확보와 더불어 방문객 유치를 지향하고 있어, 창조적 도시, 지역의 발전 전략은 결국 관광 산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이무용, 2012; 이용숙·최정인, 2012).
- 5) 이런 모순적 상황은 일본 오키나와 섬의 경우 국가간 계약으로 이루어진 미군 군사기지의 만일의 전쟁에 대비하는 입장과 지방정부가 미군기지를 축소 또는 완전히 이전하여 평화의 섬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간에서도 찾을 수 있다(이기호, 2012; 김진호, 2001).

文獻

가즈미 미즈모토, 2005, “히로시마 평화인권운동: 군사도시에서 평화도시로,” 4·3과 역사, 5, 161-193.

고성준·김부찬, 2005,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향후 과제,” 동아시아연구논총, 16(1), 19-48.

고영철·최낙진, 2008, “제주지역 신문 뉴스의 다양

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6(2), 5-42.

김용창, 2011, “새로운 도시발전 패러다임 특징과 성장편의 공유형 도시발전 전략의 구성,” 공간과 사회, 21(1), 105-150.

김진호, 2001, “태평양 도서국가의 생태적 안전보장 연구: 일본 지자체 평화운동에 주는 교훈,” 제주연구, 19, 171-212.

류연택, 2012,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시와 지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1), 125-136.

류주현, 2008, “부정적 장소자산을 활용한 관광 개발의 필요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3), 67-79.

메타기획컨설팅 역, 2009, 크리에이티브 시티 메이킹, 역사넷(Landry, C., 2006, *The Art of City Making*, Routledge, London).

박규택·이상봉, 2013, “창조도시 담론의 비판: 생성의 로컬리티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1), 60-74.

박은실, 2008, “국내 창조도시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국토연구, 322, 45-55.

변종현, 2012, “지자체 평화 실현 프로그램의 비판적 검토,” 통일문제연구, 57, 83-115.

소진광, 2008, “세계평화의 산실, 국제도시 제네바,” 국토연구, 322, 62-67.

안미정, 2008, 제주 잠수의 바다발, 제주대학교출판부.

양길현, 2007, 평화변영의 제주정치, 오름.

엄상근, 2012, 제주도의 유네스코 창조도시 추진 전략, 제주발전연구원.

이기호, 2012, “동아시아의 복합위기의 특성과 대응단위로서 평화도시의 가능성과 전략,” 공간과 사회, 41, 39-65.

이무용, 2012, “창조관광의 이론 체계 개발에 관한 이론적 연구,” 동북아관광연구, 8(4), 239-251.

이용숙·최정인, 2012, “싱가포르의 창조도시 정책에 대한 비판적 소고,” 공간과 사회, 22(2), 5-37.

이원호·이종호·서민철 역, 2008, 도시와 창조계급, 푸른길(Florida, R., 2005,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Routledge, New York).

이창기, 1992, “제주도의 인문환경과 자연환경: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환경-도전, 적응, 초

- 월의 메카니즘,” 제주도연구, 9, 17-35.
- 이철호, 2011, “창조계급과 창조자본: 리처드 플로리다 이론의 비판적 이해,” 세계지역연구논총, 29(1), 109-132.
- 이희연, 2008, “창조도시: 개념과 전략,” 국토연구, 322, 6-15.
- 임상오 역, 2005, 창조도시, 해남(Landry, C., 2000, *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Earthscan, London).
- 임현진, 2011, “세계화시대 복합위기를 넘어,” 민주, 1, 6-11.
- 정갑영, 2008,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 지원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성훈, 2012, “‘창조도시’와 ‘문화도시’에 대한 인문적 비판,” 시대와 철학, 23(1), 385-429.
- 정재희, 2009, 남해안 시대 창조도시화 전략, 경남발전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 2008, 세계 평화의 섬 제주와 평화 산업: 기획과 도전, 보고서.
- 조성윤, 2011, “제주도의 평화 정책과 해군기지 문제,” 제주도연구, 35, 39-66.
- 주성산 · 천준봉, 2004,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본 평화 운동과 동아시아: 오스나브뤽(Osnabrueck) 시의 사례와 제주 평화의 섬에의 시사점,” 4:3과 역사, 4, 24-35.
- 최병두, 2011,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대안적 도시 전략,” 공간과 사회, 37, 5-38.
- 한상진, 2008, “사회적 경제 모델에 의거한 창조 도시 담론의 비판적 검토: 플로리다, 사사끼, 랜드리 논의의 중심으로,” ECO, 12(2), 185-206.
- 한지은, 2012, “창조도시의 중국적 맥락: 상하이 창 의 산업구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2), 137-151.
- Cunningham, S., 2012, The creative cities discourse: production and/or consumption?, in Anheier, H. and Isar, J. (eds.), *Cultures and Globalization: Cities, Cultural Policy and Governance*, SAGE, London, 111-121.
- D’Amore, L., 1988, Tourism: the World’s Peace Industry, *Journal of Travel Research*, 27(1), 35-40.
- Grodach, C., 2011, Before and After the Creative City: the Politics of Urban Cultural Policy in Austin, Texas, *Journal of Urban Affairs*, 34(1), 81-97.
- Higgins-Desbiolles, F., 2003, Reconciliation Tourism: Tourism Healing Divided Societies, *Tourism Recreation Research*, 28(3), 35-44.
- IUCN, 2007, *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Republic of Korea-ID No. 1264*, World Heritage Nomination-IUCN Technical Evaluation.
- Kelly, I., 2006, *Peace through Tourism*, International Institute for Peace through Tourism Occasional Paper, No. 2.
- Landry, C., 2012, The Creative City: Compelling and Contentious, in Anheier, H. and Isar, J.(eds.), *Cultures and Globalization: Cities, Cultural Policy and Governance*, SAGE, London, 122-152.
- Lewis, N. and Donald, B., 2010, A New Rubric for ‘Creative City’ Potential in Canada’s Smaller Cities, *Urban Studies*, 47(1), 29-54.
- Luckman, S., Gibson, C., and Lea, T., 2009, Mosquitoes in the mix: How transferable is creative city thinking?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30(1), 70-85.
- McManus, J., Shao, K., and Lin, S., 2010, Toward Establishing a Spratly Islands International Marine Peace Park: Ecological Importance and Supportive Collaborative Activities with an Emphasis on the Role of Taiwan,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41(3), 270-280.
- Megoran, N., 2011, War and Peace? An agenda for peace research and practice in geography, *Political Geography*, 30(4), 178-189.
- Pedersen, A., 2002, *Managing Tourism at World Heritage Sites: a Practical Manual for World Heritage Site Manager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 Poyya, G., 2003, Promotion of Peace and Sustainability by Community based Heritage Eco-cultural Tourism in India,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Peace*, 19(1), 40-45.
- Vanolo, A., 2013, Alternative Capitalism and Creative

Economy: the Case of Christiania,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7(5), 1785-1798.

교신: 권상철, 690-756,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 교수
(e-mail: kwonsc@jejunu.ac.kr)

Correspondence: Sangcheol Kwon, Dept. of Geography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judaehak-ro,
Jeju, Jeju 690-756, Korea
(e-mail: kwonsc@jejunu.ac.kr)

투 고 일: 2013년 06월 28일

심사완료일: 2013년 07월 31일

투고확정일: 2013년 08월 03일

K C I